

“영화 도가니 도움준 대전시에 감사”

배정민 프로듀서, 흥피에 글 남겨... “장소섭의 등 지원으로 흥행 성공”

최근 흥행과 함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영화 ‘도가니’의 배정민 프로듀서가 대전시와 대전영상위원회에 감사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2일 대전시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버 민원창구인 대전시에 바란다에는 ‘영화 도가니 프로듀서입니다. 고마워요 대전시!’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와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산하 대전영상위원회에 대한 감사의 글이 올라왔다.

배 프로듀서가 남긴 이 글에는 “대전영상위원회 등의 도움과 지원으로 도가니가 개봉과 동시에 신드롬을 일으키며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가 됐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최근 개봉한 영화 ‘도가니’는 내용상 부패한 권력사회와 비리의 사슬 등이 묘사돼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경찰서와 법원 내외부 등의 장소 섭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 프로듀서가 영화 촬영 장소 섭외를 위해 직접 전국 영상위원회

에 수소문도 해봤지만 돌아온 답은 ‘안된다’는 얘기뿐이었다.

지난 5월 초 도가니 영화 촬영지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대전영상위원회와 도완석 한남대 겸임교수는 메인 촬영 장소가 아님에도 발 벗고 나서 도움을 줬다.

또 영화 속 수백 명에 달하는 보조출연자는 각 구청의 일자리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주민과 학생들이 동원됐으며, 서구청과 중부경찰서, 대전고등법원 등도 흔쾌히 허락

해 영화촬영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 프로듀서는 “영화 도가니는 영화 내용 상 법원, 경찰서 등은 지방 촬영 장소가 필요했지만 부패한 권력사회, 청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다루고 있어 당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며 “전국적인 흥행에 성공한 도가니가 대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영화촬영을 순조롭게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박수영 기자

“땀속 아기에 음악 선물하세요”

월드휴먼브리지, 내달 8일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참가자 전원에게 출산용품 선물

“사랑스러운 아기에겐 푸짐한 첫 선물을 드립니다.”

국제구호 NGO 단체인 월드휴먼브리지(대표 지성업 산성감리교회 담임목사)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다문화가정, 미혼모 등 취약계층 임신부들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제13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는 대전과 인근 지역의 다문화가정, 탈북민, 미혼모, 외국인노동자, 농어촌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신부 200여명을 초청해 아름다운 공연과 함께 풍성한 출산용품을 선물한다.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는 소외계층 주민들을 돕고, 범사회적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해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대전 행사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대전시, 대전산성감리교회, 남양유업의 후원과 협찬을 받아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트리오 스피리토(피아노 3중주), 라파엘 가야금단, 폭스컴퍼 앙상블(오페라단) 등 다양한 음악단체의 재능나눔으로 ‘이아가기 있는 태교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음악회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분유와 젖병, 베이비 바디샤워와 바디로션, 속싸개, 배냇저고리, 거즈 수건, 신생아 면봉, 구강 티슈, 젖병솔, 물티슈 등 필수적인 출산용품



국제구호 NGO 단체인 월드휴먼브리지가 오는 11월 8일 오후 2시 30분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제13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품들을 예쁜 가방에 담은 출산용품 세트(15만원 상당)를 1개씩 선물한다. 이외에도 경품행사를 통해 유모차, 아기욕조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성업 대표는 “올 한해 월드휴먼브리지는 전국 지역을 순회하면서

총 10회의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참가신청은 모아사랑 카페(cafe.daum.net/whb789)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월드휴먼브리지 대전본부 042-581-2008. 한성일 기자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 ‘특강 열기’

‘대전관광 현황과 과제’ 질의-답변 강연시간 넘겨

목원대 서비스경영학부(학부장 강부식교수) 학생들이 지역의 관광경영을 선도하고 나섰다.

서비스경영학부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27일 ‘대전관광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 시리즈를 개최했다.

1시간으로 예정된 특강은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질문으로 인해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강사로 나선

대전발전연구원 문경원 녹색생태관광 사업단장은 최근 대전의 녹색관광 활성화 및 대청호 오백리길을 확충하는 데 따른 이점, 그리고 스토리텔링 사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충청권 관광경영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해 볼 것을 권했다.

이번 특강 시리즈는 이번 학기 세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대전포도로 만든 와인 맛보세요

시 신상·판매동서 10t 생산... 내달 1일 시음회

대전시는 내달 1일 오후 1시 30분 호텔인터시티(옛 스페리아호텔)에 메달드 홀에서 동대전 지역에서 수확한 캠벨리리 포도로 만든 ‘명품와인’ 시음 평가회를 갖는다.

이번 평가회는 시와 시의회, 농협, 제조업체, 푸드&와인축제 및 조리사대회 자문위원, 농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서 생산한 와인을 시음한다.

이번에 와인은 시가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상동, 판매동지역에서 생산한 캠벨리리 포도 10t을 와인과인코리아로 운송 45일간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750ml 1만병이 생산됐다. 이날 시음평가회에는 대전 와인 라벨디자인을 개발한 콰크(Theodore Kwack) 프랑스 뉴칼레도니아 한국문화원장도 참석한다. 임병안 기자

장애인 자원봉사 고맙습니다

유성구종합복지관 ‘사랑나눔 대행진’... 이지희씨 ‘대상’

사랑나눔대행진이 화려한 팡파르를 울리며 시작됐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석연)이 매년 지역 장애인을 위로하고, 한해동안 타인을 위해 몸으로 수고하고, 마음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11 사랑나눔대행진이 27일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유성구청장, 이상민 국회의원, 윤종일 구의장을 비롯한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장애인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날 유성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해동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해온 자원봉사

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대상과 시상장상, 시의장상, 유성구청장상, 유성구의장상, 법원이사장상, 복지관장상 등의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제8회 대전장애인자원봉사대상 영광의 수상자는 이지희(47·유성구장애인주부자원봉사단)씨가 차지했다.

이지희씨는 지난 6년동안 장애인을 비롯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주인공이다.

이날은 특히 유성구장애인종합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27일 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사랑나눔 대행진’을 열고, 한해동안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복지관 다드림후원회를 비롯한 한 국조폐공사, 국민은행 반석지점, 탄동농협, 노은신화수산,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등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700가정에 쌀 10kg씩을 전달하는 사랑의 쌀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전충청지 유성구장애인주부자원봉사단)씨가 차지했다.

5개구에서 출전한 장애인 20여 명이 노래경연을 벌여 김수중(서구청장, 지체 6급)씨가 대상 수상해 상품으로 32인치 LCD TV를 받았다.

이날 가요제는 복지관 홍보대사인 가수 류관씨가 흥겨운 공연 무대를 선보였다.

가요제후엔 지필병장고와 김치냉장고 등 경품추첨시간도 마련됐다.

야외 행사장에서는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와 함께 기자자동차 노은지점에서 장애인 자동차 무상점검 봉사서비스를 제공했다.

윤석연 관장은 “올 한해도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전통불교문화원 지역 명소로”

본부장에 정안스님 임명... 사무국장엔 광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옆에 위치한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에 정안(스님)이 임명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에 정안 스님, 사무국장엔 광전 스님을 임명했다.

신임 본부장 정안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76년 해인사에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어 중앙승가대학교 사무처장과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 가평 아가타보원사 주지를 맡고 있다.

또 신임 사무국장 광전 스님은



정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94년 범어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고 교육원 연수국장, 용궁사 주지를 역임후 국제선센터 국제국장으로서 활동했다.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에 임명된 정안 스님은 “해오 스님의 뒤를 이어 전통불교문화원 제2대 본부장에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통불교문화원이 지역서 사랑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성일기자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시 내일 대전청 무궁화홀

대전시는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한마당’ 행사를 29일 대전경찰청 무궁화 홀에서 연다.

이날 한마당은 중·고등생 및 지도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 과다 사용과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대안을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정보문화포럼과 청소년 동아리공연마당, 인터넷 휴(休)요일 캠페인 등이 펼쳐진다.

‘정보문화포럼’은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교수의 ‘청소년 사이버 일탈 현상분석’이란 주제발표와 교사 및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청소년 동아리 공연마당은 대전 고등학교 학술동아리인 ‘솔로몬의 지혜’ 등 11개교 15개 팀의 동아리가 참여해 합창 및 통기타, 사물놀이, 그룹사운드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교류 활동을 더욱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세종시 건설현장 안전사례 발표대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부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강당에서 세종시 건설현장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대림산업(주) 행복도시시공2교 건설공사 현장(발표: 전영준 안전팀장)이 대상을 받았다.



대통령기 독서경진 대덕구예선 시상 새마을문고대덕구지부(회장 조성환)는 27일 인산평생학습도서관에서 정용기 대덕구청장, 김홍태 새마을대덕구지회 지회장과 수상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 대덕구예선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로하스해피로드 가을정취에 푹~

대덕구, 내일 걷기대회

대덕구는 신탄진 로하스해피로드 조성과 대형캠 자전거길 개장을 기념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공동으로 ‘생명의 금강, 로하스해피로드 걷기대회’를 29일 개최한다.

로하스해피로드 걷기대회는 29일 오후 1시 신탄진 용정초등학교에서 금강로하스에공원~금강리버뷰~로하스금강대청공원 구간 5.7km를 가족과 연인, 이웃이 함께 걷



는 코스다.

이날 걷기대회에 식전행사로 타악공연과 경과보고, 테이프커팅, 대형캠자전거길개방선언, 걷기대회, 축하공연과 행운권 추첨으로 진행된다. 임병안 기자



새시대 새아침!

남보다 먼저 듣겠습니다... 남보다 먼저 쓰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신문! 충정을 여는 신문! 중도일보가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신문!

